

지역 매 아리

김제정신건강복지센터 송년행사

김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24일 '행복마음모아'를 주제로 등록회원 및 가족 100여명을 초청해 한 해 동안 노력한 성과를 확인하고 그 노력을 위로해주는 시간을 갖고자 송년행사를 개최했다.

송년행사를 통해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우수한 활동을 한 회원들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또한 정신장애인이 한해 동안 정신건강재활사업으로 진행된 재활활동의 다양한 활동을 발표하는 시간을 오카리나 연주, 기타연주, 컵타 연주 등의 공연을 실시했고 주간재활 프로그램의 법집공예, 원예 공예 등 다양한 공예작품이 전시 되었으며 가족과 함께 활기찬 추억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일일 사진관이 운영되었다.

김제정신건강복지센터는 등록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 2회 미술치료, 공예활동 등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훈련, 지역문화탐방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정신장애인은 김제정신건강복지센터(542-1350)로 연락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교월동, 통장협의회 100만원 중앙병원장례식장 백미 300kg 기탁

김제시 교월동에는 연말을 맞이하여 추운 날씨만큼 마음이 추운 이웃들을 위한 성금·현물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교월동통장협의회(회장 최창의)는 교월동행정복지센터에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통장협의회는 "지난 10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받아 사명감을 갖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도움이 가장 따뜻한 복지라고 생각하며 기부금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서로 힘을 모아 교월동의 어려운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제중앙병원장례식장(대표 김준)은 백미10kg 30포(75만원 상당)를 기탁하였다. 김 대표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추운 연말에 따뜻한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공유경제 발굴 보폭 넓혀

## 완주군, 정책발굴·학술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완주군이 공유경제 정책 발굴을 위해 발 빠르게 보폭을 넓히고 있다. 완주군은 군청 1층 문화강좌실에서 문원영 부군수 주재로 지난 21일 '공유경제 정책 발굴, 학술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주민, 공유활동 단체, 공유기업대표, 학계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용역결과 점검과 공유정책 비전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지난 11월 7일 진행된 킷오프미팅 착수보고회, 12월 1일 주민참여 공유경제 아이디어 개발 워크숍에서 수립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미래 2025년 완주형 공유경제 종합정책 연구계획안'의 전문 심층토론과 의견청취가 이뤄졌다.



완주군은 지난 21일 군청 1층 문화강좌실에서 '공유경제 정책 발굴, 학술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본 용역과업을 수행한 SCG직무전문성 연구소(고영 대표)는 완주군의 시장경제, 지역 문화적 특색, 인구구조, 행정구조 환경, 교통인프라 등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SWOT(Strength(강점), Weakness(단점), Opportunity(기회), Threat(위협)의 합성어) 기반 결과를 바탕으로 완주만의 브랜딩 공유모델인 귀농형, 귀촌형, 창업형, 생활형 4개 분야 연구프로젝트의 20가지 전략과제를 도출했다.

도출된 과제는 완주 시그니처 공유사업 개발을 위한 귀농·귀촌인 12단계 정착과정을 분석, 적용한 '귀농인 공유주거단지', '경작지/농기계/종사솔루션 경작 공유사업', '도시재생 크라우드 펀딩', '엔터크 전기차' 등이

다. 완주군은 이번 보고회에 참여한 주민, 학계전문가 등이 제시한 의견을 보완해 최종 완료 보고회를 거쳐 공유경제 발전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원영 부군수는 "공유경제의 거래되는 자원범주와 분야는 매우 다양한 다각적 측면의 폭넓은 범위 연계가 필요하다"며 "민관협력 공유정책들이 입안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 '수확진 사랑더하기' 사회공헌 활동 진행

## 지평선축제기간 무료 자선공연... 김제시에 차림이불 100채 기증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24일 김제시청 시장실에서 (사)수확진 사랑더하기에서 연말연시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차림이불 100채(1,600만원 상당)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증된 차림이불 100채는 제20회 김제지평선축제 기간 동안 진행한 남성듀오 수확진의 무료 자선공연 수익금과 (사)수확진 사랑더하기 기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수확진은 2017년 연말 양모이불 50채를 기증한 데 이어 2년 연속으로 김제시를 위하여 물품을 기증하고 있다.

평소 전국을 순회하며 재능기부 형식의 거리 공연을 통한 모금으로 불우이웃 돕기에 앞장서고 있는 수확진과 김제시의 인연은, 2017년 제19회 지평선축제의 무료 공연부터 이루어져 올 제20회 지평선축제장에서도 역시 '파초', '사랑으로', '새벽아침' 등 대중에게 잘 알려진 통기타 무료 공연으로 축제를 빛내 주었으며 축제를

통한 인연으로 김제시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기증사에서 수확진은 "지평선축제를 통하여 김제시의 특별한 인연을 맺고 2년 연속 김제시 관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비록 큰 도움은 아니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축제기간 동안 아름다운 통기타 공연으로 관광객에게 기쁨을 준 것만도 감사한데, 이렇게 잊지 않고 올해도 아름다운 선행을 베풀어 준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수확진의 아름다운 마음이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사)수확진 사랑더하기에서 기증한 차림이불 100채는 김제시 주민복지과(서상원 과장)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지원대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 장애인종합복지관 2018 송년감사축제 진행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강경완)은 지난 21일 이용자, 후원자, 자원봉사자가 250여명이 함께 하는 송년감사축제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1부, 2부, 3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부에는 체험부스, 먹거리부스, 전시부스를 운영하였고, 2부에는 기념식이 진행되었으며, 3부에는 복지관 이용자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참여하며 준비한 난타, 댄스, 합창, 동화구연 등 발표회 시간을 가졌다. 올해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김제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김제시장애인체육관 장애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후원해주고 봉사해주신 후원자, 자원봉사자 유공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2018 완주군 윈터푸드 페스티벌

# "모락모락 맛있는 겨울"

28 ~ 29일까지 삼례문화예술촌서 개최

'우리밀 찰떡속의 금반지를 찾아라' 등 이벤트

완주의 대표 관광지인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완주농산물과 전통놀이를 연계한 겨울축제가 열린다. 완주군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완주음식의 우수성과 건강한 식물을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기회를 제공하는 '윈터푸드 페스티벌'이 개최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모락모락 맛있는 겨울'이라는 주제로 먹거리 식도락, 체험거리 동동락, 불거리 3가지 모여락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음식으로 따뜻한 완주의 겨울을 체험하는 식도락에서는 화덕에서 DIY꼬치구이, 따뜻한 길거리 음식존, 관내 10여개 단체, 생산자, 가공업체들이 음식체험과 판매가 진행됐다.

세시풍속놀이로 겨울을 즐길 수 있는 동동락에서는 겨울놀이 한마당과 전통놀이를 진행한다. 아울러 모락모락 책놀이, 겨울음식 쿠킹클래스, 프리마켓 등 다양한 체험거리가 준비돼 있다.

웅기종기 모여서 체험, 공연, 불거리를 제공하는 모여락에서는



'완주의 따뜻함을 드세요'라는 주제로 창작뮤지컬과 모락모락 따뜻한 맛나눔이 가득하다.

2019개 우리밀 찰떡속의 금반지를 찾아라 등의 이벤트가 진행되며, 완주농산물의 경매행사를 진행해 수익금을 행사에 참여한 단체, 생산자, 가공업체들의 이름으로 기부한다.

김종연 경제안전국장장은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한 따뜻한 나눔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족, 연인, 동료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많은 분들이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 완주군, 올해 혁신 평가 2년 연속 전국 1위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정부가 중점 추진, 시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8 지자체 정부혁신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군단위 1위를 기록했다. 완주군은 전국 243개(광역 17, 기초 226)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혁신 평가에서 도내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재정 인센티브로 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게 되며, 내년 상반기에 정부포상도 수상하게 됐다. 2년 연속 1위를 기록하면서 완주군은 명실상부 정부혁신 선도지자체로 우뚝 서게 됐다. 혁신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정부혁신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을 구성해 진행됐다.

정부혁신평가단은 학계와 시민단체 인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국민평가단은 지역 및 성비 등을 고려해 200명이 선발됐다. 이들은 1차 서류평가와 2차 면접평

가를 거쳐 혁신실적이 탁월한 기관을 선정했다. 평가 방식은 △사회적 가치 실현, 혁신 추진 기반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인력개선, 장애인 고용노력)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주민참여 확대, 협업문화조성, 공공자원개발, 공공데이터, 정보공개) △납은 관행을 혁신하는 신뢰 받는 정부(청렴도, 일하는방식혁신, ICT활용 공공서비스혁신) △기관 대표 혁신 사례 등 5개 항목 11개 정량·정성평가 지표로 진행됐다.

완주군은 정부혁신 취지에 맞는 주민소통과 민관 거버넌스에 기반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실행계획의 충실성 및 추진체계 운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인력개선, 국민신문고 활용, 공공자원 개방 등 평가에 새로 추가된 분야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완주=이중복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협에 대한 지속적 경계